

자유·인권 향한 투쟁 현장... 청소년들 교육의 장으로



독일 작센주(州) 라이프치히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사 포럼' 박물관 건물 앞에 자유와 인권을 위해 저항하는 라이프치히 시민을 형상화 한 조형물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부) 선진 인권도시로 배운다 – 獨 라이프치히 '현대사 박물관'

나치·2차대전·분단 독일 등 현대사 기록물 전시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미래 역사발전 기초 다져

유대인이 학살되는 장소에서 삼삼오오 모여 히죽 거리는 독일군 장교들, 자유와 인권을 찾아 비장한 얼굴로 베를린 장벽을 뛰어넘는 동(東)독일 장교, 죽음을 무릅쓰고 소련군 탱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독 노동자들.

이 모든 것이 1930년 이후 독일의 아픈 과거 역사를 기록한 사진들이다.

갖가지 기록물을 통해 독일의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항쟁의 도시' 라이프치히 중심가에 자리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자유와 인권 교육장 '현대사 포럼'=독일 라이프치히 시에서는 독일과 분단된 동독의 현대사가 담긴 사진과 문서·미디어·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현대사 포럼' 박물관이 있다. '현대사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이 박물관에는 히틀러와 나치의 탄생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유대인 등 이주 민족 학살, 전쟁 이후 동서 분단, 옛 동독 지역에서의 공산당의 독재와 인권 탄압,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과 1989년 독일 통일을 견인한 '월요항쟁'에 대한 기록물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또한, 현대사 연구실 등이 갖춰져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현대사 밤과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독일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미래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곳 박물관은 독일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 및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독일 현대사의 학술 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곳이 독일 수상의 직속 관할 박물관이라는 것이다.

독일 대부분의 박물관과 기념관, 기록관 등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인 반면 수상실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독일이 자신들의 아픈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깊이하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자유·인권을 향한 저항의 도시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은 옛 서독 수도였던 본과 자유·민주·인권을 향한 투쟁의 도시인 동독지역의 라이프치히 시 2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베를린이나 뮌헨 등의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인 라이프치히에 '현대사 포럼'이 설치된 이유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가져온 라이프치히 시민들의 '월요 항쟁'과 스탈린 공산 독재에 항거해 라이프치히 시에서부터 시작된 노동 시위운동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라이프치히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같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위들이 연이어 벌어진 곳이다.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월요항쟁'도 독일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1953년 노동시위운동도 독일 현대사에 있어 대규모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1953년 6월7일 라이프치히 등에서 스탈린에 대항한 노동시위운동이 벌어졌고, 이 시위는 당시 자유와 인권을 탐구하는 독재를 물러가게 하자는 급진적 요구였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진 시위였다.

이 시민항쟁이 점차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동독의 사통당 정부는 당황해 소련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군이 진압으로 투입되면서 하루 만에 동독 주민 5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시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체제 독재에 대항해 일어난 최초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라이프치히 시민들은 정의와 자유·인권을 위한 '시민정신'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고, '현대사 포럼' 박물관은 독일 라이프치히 청소년들을 비롯한 독일 국민의 주요 교육장이 되고 있다.

눈에 띠는 전시를 중 하나는 옛 동독 시절 한 지역 책임자의 흉상이다. 동독 지역에서 가장 인권탄압 등에 앞장섰던 동독 관료 흉상에 독일 청소년들을 비롯한 관객들이 박물관을 모두 둘러본 뒤 자신들의 소감을 남겼다.

'통일이 돼서 너무 좋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유와 인권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글들이 남아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라이너 엑케이트

독일 현대역사 박물관장 겸 교수



역사적 과오 되풀이 않도록

체계적 자유·인권 교육 필요

라이너 엑케이트(Rainer Exkert·사진) 독일 현대역사 박물관장 겸 교수는 "잘못되고 아픈 역사도 역사인 만큼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인권을 발전시켜 나가며 새로운 미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너 관장은 최근 일본의 동아시아 도발에 대해 "이전 세대에 일어났던 아픈 역사와 잘못된 역사에 대해 용서와 화해는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세대가 이러한 과거 역사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세들이 자연스럽게 역사 교육장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권과 자유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너 관장은 한국 통일과 관련해 "통일은 오래 준비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서적·문화적·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변 서방국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특히 흡수통일은 위험부담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무(법원인가)
임찰에서 병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동구 소재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 561㎡ 건물1440㎡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11억7천㎡ 가8억7천㎡

▷ 북구 풍향동 2층주거지역 3층상가주택 대지 130㎡ 건물325㎡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1억7천㎡

단독주택

▷ 남구 봉암동 2층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 251㎡ 건물152㎡ 감정가 1억6백평 최저가 1억7천6백평

▷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 합) 대지 1505㎡ 건물140㎡ 감정가 1억9천3백평 최저가 1억7천3백평

▷ 학순 능수면 2층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 400㎡ 건물 123㎡ 감정가 1억2천6백평 최저가 9천7백평

▷ 장성 흥룡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 823㎡ 건물235㎡ 감정가 1억1천 최저가 7천8백평

공장

▷ 북구 용진동 대지 2315㎡ 건물 1543㎡ 감정가 22억7천4백평 최저가 18억2천평

▷ 장성 동화면 대지 16300㎡ 건물 1365㎡ 감정가 14억2천평 최저가 6억3천5백평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도심근교 주거지역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 750㎡

▷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음 전 3643㎡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탑공인중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금매물건 다행확보

1) 금호동, 막지골길, 남향, 4층, 원6, 투6, 인접, 토지 231㎡, 건물 371㎡, 매 5억8천만원(월 1900만원, 월 1억7천만원)

2) 회경동, 4층, 금호월드인근, 남향, 토지 313㎡, 건물 455㎡, 원투룸 18개, 매 6억2천만원(월 2000만원, 월 1억9천만원, 월 1억9천만원)

3)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5층, 신축, 토지 235㎡, 건물 685㎡, 2층사무실 74㎡, 투6, 최고금값 140평(매 10억5천만원(월 3500만원, 월 1억5천만원, 월 1억5천만원))

4) 산인동, 4층, 토지 262㎡, 건물 396㎡, 전남대, 월 237㎡, 원 7억7천만원(보 1900만원/월 760만원, 월 1억5천만원)

5)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 합) 대지 1505㎡, 건물 140㎡, 감정가 1억9천3백평 최저가 1억7천3백평

6) 풍향동, 4층, 투6, 인접, 토지 231㎡, 건물 430㎡, 남향, 매 4억7천만원(보 2000만원/월 750만원, 월 1억5천만원)

7) 수원동, 4층, 토지 260㎡, 건물 450㎡, 최고급인점, 인접, 1층상가, 원 투룸 10평, 매 1억9천5천만원(보 1억5천만원/월 550만원, 월 3억9천만원)

8) 쌍촌동, 4층, 토지 297㎡, 건물 611㎡, 원투룸 19평, 쓰리룸 11평, 인접별도, 매 7억5천만원(보 9억7천만원/월 250만원, 월 1억5천만원)

9) 용봉동, 4층, 투6, 토지 215㎡, 건물 480㎡, 원룸 12평, 안점, 매 5억2천(보 3000만원/월 350만원, 월 1억5천만원)

10) 광진동, 재개발 10층, 토지 110㎡, 건물 218㎡, 1층상가, 2층주택, 인접별도, 매 6억3천만원(보 6000만원/월 100만원, 월 900만원)

11) 유촌동, 4층, 토지 172㎡, 건물 260㎡, 원룸 4평, 투6, 5평, 남향, 최고급인점, 원룸, 쌍촌동 주택지역 공시지가 2억5천만원(매 244평)

12) 중동, 4층, 토지 160㎡, 3개비 코너 공시지가 4억7천평 매도 5억7천평

13) 계림동, 상업지역 153평, 공시지가 6억3천평 매도 5억7천평

14) 신안동, 4층, 투6, 토지 218㎡, 건물 218㎡, 1층상가, 원룸 12평, 안점, 매 5억2천(보 3000만원/월 350만원, 월 1억5천만원)

15) 동구, 4층, 토지 172㎡, 건물 260㎡, 원룸 4평, 투6, 5평, 남향, 최고급인점, 원룸, 쌍촌동 주택지역 공시지가 2억5천만원(매 244평)

16) 풍향동, 4층, 토지 243㎡, 건물 380㎡, 원룸 12평, 안점, 매 6억3천만원(보 3000만원/월 350만원, 월 1억5천만원)

17) 회경동, 4층, 토지 247㎡, 원룸 24평, 6층, 7층(9평), 복층, 최고급인테리어(매 16억(보 1억5천만원/월 850만원, 월 6억))

☆ 매도·매수·하심분석 상담·현장★

★ 구인: 원룸/상가임대/성실한분모집★

062) 368-0789, 010-3671-7145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 요양시설 등 저작, 회손군 도군 대지 302평 건물 506평 4억7천평
- 총장로 수제, 대지 27평 30 평가 1억9200평 매도 1억7천평
- 북구 회암동 방 719평 주택 2채 임대 사찰등 판매 2억4천평
- 종로 57-2 2층 상가 대지 27 건물 30 폐도 1억7천평
- 시내 LPG 충전소 대지 1014 폐대 11억5천 폐도 1억9천평
- 우동 상업지역 요양병원 적합 대지 928㎡(280평) 7층건물 647㎡(192평) 매도 35평
- 동구 제일 오피스텔 28평형 14층 매도 4600만원
- 4동 청호아파트 32평 매도 1억 3500만원

나대지

- 중앙로 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할거해야함 원룸, 쌍촌동 주택지역 공시지가 2억5천만원(매 244평)

• 중동상업지역 106평 3개비 코너 공시지가 4억7천평 매도 5억7천평

• 계림동 상업지역 153평 공시지가 6억3천평 매도 5억7천평

•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로면 상업지역 24평 생활주택

• 옥포스텔 적합 공시지가 9억4천평 매도 7억7천평

• 기도원 적합 회손군 등면 (산 1667평) 매도 2억3천평

• 공공부지 행정군 해보면 국도 1725평 2억8천평

• 북동 주차장 300평 운영잘됨 매도 4천평